



목포 바다분수·레이저쇼 목포 해양문화축제로 선보인 첨단 IT기법의 '바다분수 불꽃쇼, 레이저 퍼포먼스'가 지난 4일 밤 평화광장 앞바다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축제는 7일까지 평화광장과 삼학도 일원에서 계속된다.

여수 앞바다 적조주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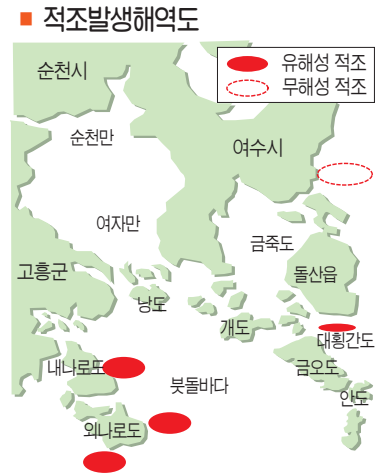
전남 해역 4년만에...고흥지역 등 양식장 비상

경남 남해안에서 시작된 적조가 전남 지역으로 퍼져 여수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남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08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5일 여수시 돌산읍 일교 동쪽 앞바다에 적조주의보를 내렸다. 이 해역은 적조생물의 밀도가 250~3960cells/ml이고, 수온도 25~26℃로 고수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는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등대에서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에 이르는 경남 수역에만 적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적조가 확산하면서 여수 일대에도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특히 여수~남해에 걸쳐 풍동이 자주 불어 적조피가 서쪽으로 빠르게 이동·확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양식장이 밀려 있는 여수와 고흥지역 해역에는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적조피가 발견된 해역에 대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어민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여수 북돌바다와 고흥 석환도~염포~봉남 수역 등에



서도 적조피가 출현하고 있어 수산당국과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흥 일대 해역은 파도가 높아 제때 예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적조피의 빠른 이동·확산이 우려돼 산소공급에 신경을 쓰는 등 어업인들의 양식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2007년 전남에서는 여수해역에 적조가 발생해 우럭, 돌 등 66만 8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5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오늘 날씨

Weather forecast for Jeonnam region. Includes a map of the region, a table of temperatures for various locations (Yeosu, Gohyeon, Suncheon, etc.), and a table of sea conditions (waves, wind, visibility) for different areas. Also includes a 7-day forecast for Jeonnam.

맑은 물 즐즐... 시원한 바람 솔솔... 무등산 계곡 확 달라졌다

"계곡물에 발 담그고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곳으로 이만한 곳이 어딴습니까. 시내버스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구요." 광주지역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기록해 숨이 턱턱 막힌 5일 이후, 시원한 계곡에서 더위를 쫓을 요량으로 가족과 함께 잠시 들렀다는 박순옥(61·동구 방림동)씨는

달하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최대 2만6000명을 넘어섰고 있다. 이처럼 중심사 계곡이 새롭게 변한 것은 2002년부터 추진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영향이 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무질서하고 노후한 상가와 방치된 쓰레

의 변모에 한 몫 했다. 새로 가꾸진 환경을 다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 또 무등산 보호단계를 중심으로 각종 캠페인이 진행되고, 기관·단체별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무등산 중심사 계곡 일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지난 2010년 하루 평균 150~170kg이던 것이 2011년에는 130~150kg으로 줄었고 최근에는 100kg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박껍질, 음식물 투기 등 행락객이 위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최근 3년사이엔 한 건도 없었다.

주말과 휴일이면 불법 주차장으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던 단시절주차 상가 주변도 진입 통제 시되어가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 이광일(52·남구 봉선동)씨는 "깨끗하고 정돈된 중심사 계곡이 좋았다"며 "손님들도 깨끗해진 환경에 놀랐다"는 말을 자주 한다

달라진 시민의식도 중심사 계곡

인권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인권침해 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한 것이 또 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지난 1월부터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현장교사 등을 참여시켜 구성한 공동연구단은 최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에 대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를 심의·의결했다.

경로당 냉방장치 가동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5일 전기요금 부담으로 경로당에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남성 음주자 10명 중 4명 주 1회 '폭음'

남성 음주자 10명 가운데 4명은 1주일에 최소 한 번씩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자 5명 중 1명꼴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폭음률은 세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일 뿐 아니라, 추세적으로도 개선의 기미가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은 '우리나라 성인 음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통해 19세이상 6257명에게 설문한 결과 77.7%가 최근 1년간 한 잔이상 술을 마신 경험(연간 음주율)이 있다고 답했다. 59.3%는 1년동안 매달 1회이상 음주한 경우(월간 음주율)였다. 연간 음주자 중 주 1회이상 폭음한 사람의 비율은 30.0%였다. 남성의 42.5%, 여성의 13.7%가 주 1회이상 폭음 수준까지 술을 마셨다. 이는 전 세계 음주자의 11.5% (남자 16.1%, 여자 4.2%)가 주 1회 이상 폭음하는 것으로 조사된 2005년 WHO 통계와 비교해 전 세계는 물론 각 성별로도 거의 3배에 이를 만큼 매우 높은 수준이다.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Travel (롯데제이티비)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Jeju, Hwangshan, and other destinations. Includes prices, departure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Also features a '추석연휴 상품전' (Chuseok Holiday Special Sale) section with various gift items.